

홍진경 딸 라엘, 4개 국어 능통...모친 해외 진출 조력

등록 2026.05.04 06:56:50



[서울=뉴시스] 홍진경. (사진 = MBC TV '소라와 진경' 캡처) 2026.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인 겸 모델 홍진경의 딸 라엘이 남다른 어학 재능으로 모친의 도전을 지원했다.

3일 방송된 MBC TV 예능물 '소라와 진경'에서 라엘은 파리 에이전시 면접을 앞둔 홍진경을 위해 영어 과외를 진행했다.

현재 외국 유학 중인 라엘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엘은 홍진경의 한국어 답변을 즉석에서 영어로 통번역하고 발음을 교정하는 등 유창한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긴장한 모친에게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며 당당한 태도를 조언하는 등 성숙한 면모를 보였다.

홍진경은 2003년 5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2010년 라엘 양을 낳았다. 결혼 22년 만인 지난해 8월 이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